

의안번호	제3066호
의결 연월일	2026. 3. 24. (제308회)

의결사항	
------	--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축구 건의안

발의자	이쌍자 의원 등 11인
발의연월일	2026. 3. 10.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 (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6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이쌍자,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11인)

1. 제안이유

-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청소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성평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미래역량 중심 체험활동 확대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광역 거점 시설이 경남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경남의 중앙에 위치한 고성군은 도내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지리적 중심성과 함께 무인기 산업 인프라, 해양체험 기반, 자연치유 환경이 결합된 복합 교육·체험 입지를 갖추고 있어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최적지로 평가됨.
- 더 나아가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국립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유치는 인구소멸지역 회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음.

- 경상남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기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경남 고성군에 건립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과 역량 형성이 집중되는 시기로 다양한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전인적 성장과 정서 안정, 비행 예방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임.
- 고성군은 경남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동부·서부·남부권 모두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정 도시 편중 없이 경남 전역 청소년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무인기 종합타운, 드론 산업 기반, 해양레포츠 및 자연치유 환경 등 미래직업 체험과 생태·해양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복합형 미래 청소년수련 모델 구현이 가능함.
-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은 캠프, 연수, 전국 규모 행사 유치 등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정주·체류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회생의 기반이 될 것임.
-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주 문: 붙임과 같음

- 4. 건의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

[붙임]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청소년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과 가치관 형성, 사회적 역량 개발이 집중되는 시기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구축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확대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광역 거점 수련시설이 경남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실현의 공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은 경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특히 수련시설 입지는 특정 도시 중심의 접근이 아닌 광역 이용 편의성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상남도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고성군은 동부·서부·남부권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서 도내 전 지역 청소년이 비교적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특정 권역 편중 없이 경남 전체 청소년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고성군은 무인기 종합타운과 드론 산업 기반 등 미래산업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레포츠 및 생태·자연환경이 풍부하여 미래 직업체험과 해양·생태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수련 환경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첨단 산업 체험과 자연 친화 활동이 결합된 이러한 교육환경은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지향하는 미래형 청소년 활동 모델 구현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유치는 단순한 청소년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유입,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략적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다.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은 연수, 캠프, 전국 규모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유치를 통해 청소년 교류와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수련원 건립은 청소년 정책의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투자라 할 것이다.

이에 고성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고성군의회는 경상남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기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국립남부 청소년수련원을 경상남도 고성군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6. 3. 24.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